

어머니의 육아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교 수 박 성 연
조 교 수 도 현 심
박사과정 안 지 영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rof. : Seong-Yeon, Park
Assistant Prof. : Hyun-Sim, Doh
Doctoral Course : Jee-Young, Ahn

〈목 차〉

- | | |
|---------------|---------------------|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III. 연구 결과 |
| II. 연구 방법 | I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mothers' child-rearing practices. A total of 288 middle class mothers having children aged three to four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s on child-rearing practi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others mostly gave birth to their children in the hospital, and only 13.9% of children were breast-fed within 6 months after birth.
2. Most of mothers began weaning within 6 months after birth and finished it within 24 months.
3. Toilet training generally started between 18 and 24 months, and mostly finished in 30 months.
4. The attitude of mothers on self-help training was moderately generous to their children.
5. Most of mothers took care of their children as primary caretakers except the employed mothers whose mothers and mothers-in-law mainly took the role.

Implications of the study have been discussed in terms of developmental perspective.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이고, 언제 고형식을 먹이며, 언제 어떻게 대소변을 가리게 가르치고,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는 아기를 기르는 첫 1~2년 동안 어머니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생후 초기 1~2년은 부모의 신체적 보살핌이 절대적인 시기여서 부모의 수유 및 이유 방식, 배변 훈련 및 습관 훈련 등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가 어떠한 육아 방식을 사용하였는가에 따라 아동은 서로 다른 발달을 경험하게 된다.

육아 방식과 아동 발달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국외에서는 1950년대에, 국내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주로 수유 방식이나 이유 시기, 배변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육아 방식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공 영양아들은 모유 영양아 보다 영양 상태, 언어 발달, 보행 능력,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훨씬 낮게 나타내었다(Hoffer & Hardy, 1929; 김재은, 1975에서 재인용). 또한 수유 시간의 규칙성에 따른 차이도 보고되어, 규칙적인 수유를 했던 아동은 요구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수유를 했던 아동보다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고 조그만 일에도 격렬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Dollard, 1950; 강신선, 1983에서 재인용). 같은 맥락에서 수유량이 부족한 경우에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으며(서현자 외, 1966), 이유 시기도 영향을 미쳐 생후 10개월 이후에 이유를 시작한 아동들은 그 이전에 시작한 아동들보다 안정성을 보였으나(우영희, 1970), 이유 시기가 지나치게 늦을 때는 의존적이 되었다(이원영, 1973). 배변 훈련 방식 역시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 즉 배변 훈련을 너무 이른 시기에 받을 경우 아동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은 지나치게 조직적이며 충동적인 성격이 되기 쉽다고 하였다(Malcore, 1945:

강신선, 1983에서 재인용).

한편, 육아 방식은 지역이나 그 문화권마다 다르며,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시대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육아 방식은 미국의 것과 다르며 1990년대의 육아 방식은 1960년대나 70년대의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은 사회, 경제, 문화면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육아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머니들은 올바른 육아 방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로부터 경험한 방식대로 옛 것을 답습하던 때와는 달리 최근 10여년 동안에는 어머니들의 육아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내용에서 어떤 방향으로 아기를 기르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가 없어 아동의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부모들에게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없다. 더욱이 앞서 지적하였듯이 육아 방식은 아동의 독립심이나 의존심, 정서적 안정감, 생활 습관 형성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육아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육아 방식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육아의 여러 측면들을 살펴본 연구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어 오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의 육아 실태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으며 현온강(1971), 김재은(1975), 임 연(197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이성진 외, 1976)에서는 1976년부터 13차에 걸쳐 실시된 한국 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적 연구에서 육아 실태를 일부 내용으로 포함시켜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연구자들의 관심에 따라 육아의 몇몇 측면만을 다루고 있다. 현온강(1971)은 이유식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이유식을 규칙적으로나 혹은 가끔씩 제공하였으며, 이유식을 먹이지 않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2%)고 보고하였다.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지

역에 거주하는 0~2세 유아의 어머니 163명을 대상으로한 김재은(1975)은 출산, 수유 및 이유, 배변 훈련, 수면 습관, 부모의 교육관 등 보다 여러 측면에서의 육아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54%의 어머니가 자녀를 병원에서 분만하였고, 주로 모유를 먹이며, 아이의 요구에 따라 먹인다고 하였고 거의 1년이 지나서 이유를 시작하는 편이었다. 대소변 훈련은 21.3%가 6개월 이내 등, 대부분(68%)이 1년 이내에 시작하였다. 서울시의 20~70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연령 대에 따른 비교를 시도한 임 연(1979)은 연구 당시인 70년대로 내려올수록 이전 시기에 비해 이유의 시기가 일러지고 있다고 하였다.

육아 실태에 대한 연구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수유, 이유, 그리고 배변 훈련에 초점을 두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 계층에 따른 비교를 시도하거나(오왕목, 1984), 농촌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고려한 연구(강신선, 1983)가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사회 계층이나, 어머니 연령, 교육 수준에 따라 육아 관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계층에 따른 비교를 한 오왕목(1984)에 의하면 상류층일수록 인공유를 먹이는 한편, 하류층일수록 모유를 먹었다. 또한 상류층은 이유와 배변 훈련을 먼저 시작하여 빨리 끝낸 반면 하류층은 늦게 시작하여 늦게 끝낸다고 하였다. 또한 청결 습관은 하류층 보다는 상류층과 중류층에서 더 강조되고 있었다. 농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육아 관행 연구(강신선, 1983)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크면 저절로”라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일찍부터 성장을 위한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은모(1984)는 어머니의 학력별, 지역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한 연대별로 각각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1950년대나 1960년대의 어머니보다 1970년대의 어머니들이 모유보다는 인공유나 혼합유(모유+인공유)로 수유하는 경향이 더 많았고, 이유를 일찍 시작하였으며, 이유를 완료하는 기간 역시 짧은 경향이 있었다. 수유시에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아기

의 몸을 쓰다듬어 주거나 증얼증얼 얼러주는 애정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머니의 학력별, 지역별, 또는 연대별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의 양육 태도 혹은 행동에 (예: 온정성이나 민감성, 반응성 등) 초점을 두어 연구를 해 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육아 실태에 관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후 초기의 육아 방식이 훗날의 아동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육아 방식에 대한 실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1990년대에 있어서 현대의 젊은 어머니들이 사용하는 육아 방식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특히 육아 방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유, 이유, 그리고 배변 훈련을 주로 살펴본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들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지도와 기타 육아 관련 사항(예: 돌 전까지의 주양육자, 육아 정보의 근원) 등을 포함하여 육아와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난 10~20년전의 육아 방식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요즘 젊은 어머니들의 육아 방식과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A.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강북과 강남, 강동 지역과 일산 신도시에 거주하는 생후 36~59개월의 자녀(남아 158명, 여아 130명)를 둔 288명의 중류층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은 현재의 육아 내용 및 첫 1년 동안의 육아 내용을 회고하여 응답해야 하므로, 3세 전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표집하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58.8%이고 36~40세가 20.8%로서 35세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고졸이 34.6%, 전

문 대졸 이상이 62.2%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65.5%가 전업 주부였으며, 34.5%가 취업모였다.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45.5%, 200만원 이상이 54.5%로 나타났고,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2%, 대가족이 15.5%였다. 가족의 수입, 부모의 교육 정도, 직업 수준으로 보아 본 연구 대상자는 중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지면 관계상 표는 생략함).

B.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 도구는 육아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육아 실태는 태교 및 분만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수유, 이유, 배변 훈련, 그리고 생활지도 및 기타 육아 관련 사항(예: 돌 이전까지 주양육자는 누구인가?)이 포함되며, 총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육아 실제 질문지에 대해 어머니들은 현재 육아 내용을 보고하거나 또는 과거의 육아 실재를 회고하여 빈도 또는 선택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질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예: 돌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기의 주양육자는 누구인가?).

C.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1996년 7월 1일~7월 16일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조사자들이 서울시 강북, 강남 및 강동 지역과 일산 신도시에 소재한 14개의 유아원을 방문하였다. 원장의 허락 하에 아동들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총 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총 348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들 가운데 불완전한 응답을 한 질문지들을 제외한 후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288부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육아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 결과

A. 태교 및 분만 관련 사항

1. 태교 관련 사항

태교 관련 사항에는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와 태교의 내용이 포함된다. 태교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태교를 중시하여 열심히 실천하였거나(17.1%), 중시하였지만 적당히 실천한 것으로(73.8%) 응답하여 대부분(90.9%)의 어머니들이 이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태교를 중시하였지만 적당히 실천한 경우가 44.6%였던 1970년대 말의 연구(임연, 1979)나, 태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 경우가 51%였던 농촌 어머니들을 대상의 1980년대초 연구(강신선, 1983)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태교를 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과 시대에 따른 차이와 변화를 알 수 있다.

한편, 태교의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어머니들(62.7%)이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에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좋은 음악 듣기(58.3%), 음식 조절과 건강에 힘쓰기(43.3%), 그리고 좋은 책읽기(39.4%)의 순으로 보고하였다(〈표 1〉 참고). 김계숙(1987)의 연구에서도 태교의 내용으로 바른 마음가짐이 63.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머니들은 다른 면보다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태교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태교 내용(중복 응답)

구 분	N	문항별 %
① 좋은 음악을 들음	168 / 288	58.3
② 음식 조절과 건강에 힘씀	123 / 284	43.3
③ 마음의 안정을 취함	178 / 284	62.7
④ 아기와 대화함	94 / 284	33.1
⑤ 좋은 책을 읽음	112 / 284	39.4
⑥ 기타	15 / 283	5.3

2. 분만 관련 사항

첫 자녀 분만시 부모의 연령이나 분만 환경 등은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태도나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박성연, 1992), 분만 관련 사항으로는 첫 자녀 출산 시의 부모의 연령, 분만 장소, 분만 방법, 분만시 함께 있던 가족, 아이를 처음 만져 본 시간 등을 살펴보았다. 첫 자녀 출산시 어머니 연령은 26~30세가 대다수(69.7%)를 차지하였고, 아버지는 26~30세가 48.6%, 31~35세가 44.1%로서 대부분(92.7%)의 경우 26~35세에 첫 자녀를 두었다.

분만 장소로는 대부분(98.6%)의 어머니들이 병원을 이용하였고, 분만 방법은 정상 분만이 71.3%이었으며 제왕절개에 의한 분만도 28.7%나 되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지 않는 것이 산모나 태아를 위해 좋다는 견해(박성연, 1992)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만시에는 많은 어머니들(67.7%)이 가족이 곁에 있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남편과 함께 있었던 경우도 26.4%를 차지하였다(〈표 2〉 참고). 또한, 〈표 3〉과 같이 대부분(63.4%)의 어머니들은 분만 후 24시간 이전에 아이를 만져 보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36.6%나 되었으며, 태어난 아기는 대부분(74.1%) 신생아실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만시 함께 있던 가족 (중복 응답)

구 분	N	문항별 %
① 없다	195 / 288	67.7
② 남편	76 / 287	26.4
③ 친정어머니	36 / 287	12.5
④ 시어머니	21 / 287	7.3
⑤ 동생, 언니	14 / 287	4.9
⑥ 기타	3 / 286	1.0

〈표 3〉 분만 후 아이를 처음 만져 본 시간

구 분	N	%
① 분만 직후	93	32.7
② 12시간 이내	64	22.5
③ 12~24시간	23	8.1
④ 24시간 이후	104	36.6
계	284	100.0

B. 수유 및 이유

수유 및 이유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분만 후 첫 수유 시간과 6개월까지의 아이의 식이, 수유 방법 및 규칙성에 관한 문항과 이유의 시작 및 완료 시기, 이유식의 종류와 이유시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다.

1. 수유

분만 후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 203명(전체의 70.5%)의 어머니들 가운데 첫 수유를 시작한 시간을 살펴보면 1~12시간은 24.6%, 13~24시간은 14.3%, 25~48시간은 25.6%로 나타나 2일 이내에 어머니의 64.5%가 첫 수유를 하였다(〈표 4〉 참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임희규(1984)는 분만 후 첫 수유를 1일 이내에 한 경우는 16%, 2일 이내는 30.6%, 3일 이내는 33.5%라고 보고하였고, 김충희(1984)는 2일째가 20.6%, 3일부터가 38%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처음부터 젖을 물려주어야 모유의 분비가 계속 잘 되어 이후에 모유 수유를 지속하기가 수월하다는 점(임희규, 1984)을 고려해 볼 때, 첫 모유 수유를 늦게 시도하는 것은 모유 수유의 성공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내포한다.

〈표 4〉 분만 후 첫 수유 시간

분만 후 첫 수유 시간	N	%
① 1~ 12시간	50	24.6
② 13~24시간	29	14.3
③ 25~48시간	52	25.6
④ 49~72시간	46	22.7
⑤ 73시간 이후	26	12.8
계	203	100.0

한편, 생후 6개월까지의 식이 상태를 살펴보면, 생후 6개월까지 자녀에게 모유만을 수유한 경우는 13.9%,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수유한 경우는 46%였으며, 자녀를 인공유만으로 수유하는 경우도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연대별로 수유 방법을 살펴볼 때 1970년대 김재은(1975)의 연구에서는 78.7%가 모유를 먹였고, 임연(1979)에 의하면, 55.9%가 모유를, 21%가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사용하였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김충희(1984)의 연구에서는 4~6개월 영아중 모유 수유는 23.6%,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31.5%, 인공유 수유는 44.9%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전의 연구 결과에 비해 인공유 수유가 증가한 반면, 모유 수유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생후 6개월까지의 식이를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비교할 때, 직업을 갖지 않은 어머니들은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7.9%), 직업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는 6개월까지 인공유만 먹인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인공유를 먹이는 경우가 34.1%나 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선진국에서는 고학력층이 모유를 점점 더 많이 먹이는 경향에 비해서 우리의 인공유 수유를 보다 선호하는 본 연구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표 5〉 6개월까지 아이의 식이

구 분	어머니의 직업		계 (%)
	유 (%)	무 (%)	
① 모유만	2(2.6)	38(18.0)	40(13.9)
② 모유와 인공유를 함께	31(40.8)	101(47.9)	132(46.0)
③ 인공유만	43(56.6)	72(34.1)	115(40.1)
계	76(100.0)	211(100.0)	287(100.0)

수유 시간은 대부분(73.7%)의 어머니가 시간을 정해서 주지만 예외가 많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만 수유를 한 경우(시간제 수유)도 15.8%를 차지하였다. 한편, 김재은(1975)의 연구에서는 시간을 정해 놓고 수유하는 규칙적 수유가 37.6%이고, 임연(1979)의 연구에서는 23%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엄격한 시간제를 지키기보다는 아이의 요구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수유하는 것으

로 보인다.

2. 이유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는 이유의 시작 및 완료 시기와 그 이유, 이유식의 종류, 이유시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표 6〉에서 보듯이 과반수(56.1%)의 어머니들이 3~5개월에 이유를 시작하였으며, 대부분(76.3%)의 경우 24개월까지는 이유를 완료하였다. 이유 시작 시기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재은(1975)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45.7%가 13개월 이후에 시작하였고, 성은모(1984)의 연구에서는 첫 돌이 지나서 시작한 경우는 61.8%, 두 돌이 지나서 시작한 경우는 26.7%인 점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의 이유 시작 시기는 상당히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은강(1971)은 4~8개월에 이유를 시작한 경우를 전체 대상자의 60%로 보고하였고, 윤숙경(1981)도 이유를 시작한 경우가 6개월 이전이 약 51%, 6개월이 약 21%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이유의 완료 시기는 12개월 이전이 약 59%, 13~18개월이 37.6%로 나타나, 대상자의 15.3%와 30.8%로 각각 보고된 본 연구 결과와는 대조를 이룬다. 이유를 한 이유로는 대부분(84.8%)이 '젖떨 시기가 되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동생이 생겨서(4.2%), 엄마의 건강이 나빠져서(2.1%), 직장이나 일에 방해가 되어서(1.1%)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6〉 이유 시작 및 완료 시기

이유 시작 시기	N	%	이유 완료 시기	N	%
① 2개월까지	11	3.9	① 12개월까지	42	15.3
② 3~5개월	158	56.1	② 13~18개월	89	30.8
③ 6개월	71	25.1	③ 19~24개월	82	30.2
④ 7~8개월	22	7.8	④ 25~30개월	39	14.1
⑤ 9개월 이후	21	7.4	⑤ 31~36개월	21	6.6
			⑥ 37개월 이후	4	2.0
계	283	100.0	계	277	100.0

사용한 이유식의 종류는 〈표 7〉에서 보듯이 압축,

미숫가루, 아이 음식과 함께 시판 이유식을 섞어서 먹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43.0%), 다음으로 압축, 미숫가루나 아이 음식 종류가 34.5%, 시판 이유식이 10.9%, 그리고 어른 음식 중에서 골라서 먹인 경우는 8.1%로 나타났다. 1970년대 연구인 현은강(1971)에 의하면, 특별한 조리 없이도 줄 수 있는 계란, 과일, 곡류를 이유식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시판 이유식(베이비 후드)의 사용은 6%였으며, 김재은(1975)의 연구에서는 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은 우유, 과일, 흰죽, 파자의 순서로 보고되었다. 성은모(1982)의 연구에서는 어른 음식 중에서 골라 먹이는 경우가 40.3%, 시판 이유식이 9.2%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른 음식 중에서 골라 먹이는 경우가 8.1%로 나타나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최근의 추세는 일반적으로는 어른들 음식에서 골라 먹이는 편이나 확률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유식을 따로 만들거나 상품화된 이유식을 사 먹이는 경향이 있다는 유가효, 강신선(1983)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과 비교할 때 1970년대나 80년대에 비해 최근에는 어른 음식 중에서 골라 먹이는 비율은 줄어들고 아이의 음식을 따로 만들거나 시판 이유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이유식의 종류

구분	N	%
① 압축,미숫가루,아이음식	98	34.5
② 시판 이유식	31	10.9
③ 어른 음식 중에서 골라서	23	8.1
④ 1과 2를 섞어서	122	43.0
⑤ 기타	10	3.5
계	284	100.0

이유시 어머니의 태도는, 좀 엄하게 한 편(28.5%)을 제외하고는 대부분(71.5%)의 어머니들이 관대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왕목(1984)에서 중류층 어머니들이 이유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경우가 45%로 보고된 것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대

상자들은 보다 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C. 배변 훈련

배변 훈련의 내용은 소변 및 대변 훈련의 시작 시기와 완료 시기, 훈련 방법 및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1. 소변 훈련

대부분(77.0%)의 어머니들은 아기가 18개월이 되기 이전에 소변 훈련을 시작하였으며, 대부분(76.9%)의 경우 24개월까지는 완성되었다(〈표 8〉 참조). 성은모(1982)의 연구에서는 첫 돌이 지나서 소변 훈련을 시작한 경우가 44.1%이며 두 돌이 지나서는 21.8%로 보고된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두 돌이 지나서 시작한 경우가 3.6%에 지나지 않아, 1980년대 보다 다소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소변 훈련 시작 및 완료 시기

시작 시기	N	%	완료 시기	N	%
① 12개월까지	94	34.1	① 18개월까지	95	34.8
② 13~18개월	88	42.9	② 19~24개월	115	42.1
③ 19~24개월	53	19.3	③ 25~36개월	56	20.5
④ 25개월 이후	10	3.6	④ 37개월 이후	7	2.6
계	275	100.0	계	273	100.0

2. 대변 훈련

〈표 9〉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아기가 24개월이 될 때까지는 대변 훈련이 시작되었고(90.2%), 30개월까지는 완료되었다(92.5%). 본 연구에서는 2년 이후의 비율은 낮고(7.8%), 13~18개월의 시기(38.4%)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성은모(1982)의 연구에서는 24개월 이후가 40.3%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상당히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소변 훈련시에 아이용 변기를 사용한 경우는 82.8%, 성인용 변기를 사용한 경우는 11.8%여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이용 변기를 사용하였다. 소변 훈련시에 아이가 실수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머니가 옷을 갈아 입히면서 주의를 주는 편이고(82.7%), 때

〈표 9〉 대변 훈련 시작 및 완료 시기

구 분	N	%	구 분	N	%
① 12개월까지	76	28.4	① 12개월까지	14	5.3
② 13~18개월	103	38.4	② 13~18개월	73	27.8
③ 19~24개월	68	23.4	③ 19~24개월	108	40.6
④ 25~30개월	17	6.3	④ 25~30개월	50	15.4
⑤ 31개월 이후	5	1.5	⑤ 31~36개월	15	5.6
			⑥ 37개월 이후	5	1.9
계	268	100.0	계	266	100.0

리고 야단치거나(7.4%), 잠자코 옷을 바꿔 입히는 경우(9.9%)의 비율은 낮았다. 소변 훈련 시에 아이가 실수한 경우에 때리고 야단치는 것이 22.5%, 위협하는 것이 38.8%, 내버려두는 것이 9.9%로 나타난 김재은(1975)의 연구나, 때리고 야단치는 것이 16%로 나타난 성은모(1982)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야단치는 방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옷을 갈아 입히면서 주의를 주는, 즉 설명하는 식의 방법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향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배변 실수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유가효, 강신선(1983)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학력이 비교적 높고 35세 이전의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어서 배변 훈련시 때리고 야단치는 경향이 낮다고 해석된다.

한편, 대소변 훈련시에는 〈표 10〉과 같이 아이에게 변의를 미리 표시하도록 가르치거나, 어머니가 자주 “쉬?”, “응가?” 라고 물어 보는 방법, 용변을 볼 때쯤 미리 변기에 앉히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저귀의 사용은 집에서는 구입한 면직물 기저귀를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1회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73.2%)이었으나, 집에서나 외출시에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가 4.9%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에, 집에서나 외출시나 항상 1회용 기저귀를 사용한 경우는 21.8%로 나타나 어머니들이 비경제적이지만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기를 살펴보면 약 70%의 어머니들이 기저귀가 젖을 시간이 되면 자주 풀어 보고 조금 젖으면 갈아준다고 응답했고, 두 번 정도 젖

〈표 10〉 대소변 훈련시 주로 사용한 방법(중복 응답)

구 분	N	각분항별 %
① 용변을 볼 때쯤 미리 변기에 앉힘	131/288	45.5
② 변을 보고 싶을 때 미리 표시하도록 가르침	208/288	72.2
③ 밤에 자기 전에는 물을 덜 먹임	37/288	12.8
④ 실수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음	11/288	3.8
⑤ “쉬?” “응가 할래?” 라고 물어 봄	190/285	66.7

으면 갈아주는 경우도 27% 정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귀를 채우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김재은(1975)의 연구에서 기저귀를 안 채우는 경우가 74.4%이고, 자주 풀어 보는 경우는 18.1%로 보고되어 흥미롭다. 또한, 오왕목(1984)의 연구에서는 젖어서 울면 갈아주는 경우가 37.6%이고, 젖으면 갈아주는 경우는 34%로 나타나, 젖을 시간에 자주 풀어 보고 갈아주는 경우가 69.9%인 본 연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집안에 있을 때 기저귀를 채웠던 기간을 물어 본 결과 1년까지 기저귀를 채운 경우가 19.4%, 1년 반까지가 54.2%, 2년까지가 21.8%, 2년 이상이 4.6%로 나타나 대개 1년 반까지는 집에서도 주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배변 훈련에 대한 태도는 약 15%만이 엄하게 하였고, 대부분(61.2%)은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24%) 취하였으며, 저절로 가릴 때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경우도 약 24%로 나타났다.

D. 생활 습관 지도

1. 착의 및 탈의

착의 및 탈의에 관한 내용은 착의 및 탈의시 어머니의 도움 정도와 습관 지도시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현재 자녀의 옷을 입혀주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옷을 혼자 입게 하고 어려운 부분은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한 경우는 67.1%, 주로 어머니가 입혀 주는 경우는 26.2%, 혼자 입는 경우는 6.6%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동이 옷을 입을 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

고). 아동이 옷을 벗을 때는 혼자 벗게 하고 어려운 부분은 어머니가 도와주는 경우가 70.5%, 혼자 벗게 하는 경우는 17.9%, 주로 어머니가 벗겨 주는 경우는 11.6%였다(표 12)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아동이 옷을 입는 것보다는 벗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아동이 옷을 벗을 때는 입을 때 보다 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착의와 탈의와 같은 자조 능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Bee, 1992), 3세 아동과 4세 아동간에 어머니가 도와주는 정도가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착의시와 탈의시 모두 4세 아동에 비해 3세 아동의 경우 그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만 3~4세는 옷을 입고, 벗는 것을 배우고 스스로 해 나가야 할 나이이므로(Bee, 1992), 본 연구에서 주로 어머니가 입혀 주는 경우가 26%, 벗겨 주는 경우가 12%정도로 높게 나타난 점은 아동의 자조 기술 발달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들의 착의 및 탈의 습관 지도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관대한 경우가 56.8%, 저절로 하게 될 때

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경우는 39%, 좀 엄하게 한편은 4.2%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착의 및 탈의 습관 지도시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절로 하게 될 때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가 39%로 나타난 것은 착의 및 탈의시 어머니의 도움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독립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수면 습관

수면 습관에 관해서 잠재울 때 입에 무엇을 물려서 재우는가와 잠재우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재우는 지에 관해 질문하였다. 잠재울 때 입에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 경우는 59.6%, 젖을 물려서 재우는 경우는 28.1%, 가짜 젖꼭지를 물려 재우는 경우는 12.3%였다. 또한 잠재울 때는 혼자서 잠들게 하거나(16%), 어머니가 안아 주거나 업어 주는 경우(16.3%)보다 어머니가 주로 옆에서 다독거려 주거나 함께 누워 있는 경우가 67.7%로 많았다. 오왕묵(1984)의 연구에서는 중류층의 어머니들이 아이를 재울 때 안아 주는 경우가 41.1%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입

〈표 11〉 자녀의 착의시 어머니의 도움

구 분	만 3세 (%)	만 4세(%)	계 (%)
① 혼자 입게 한다.	6 (3.7)	13 (10.5)	19 (6.6)
② 혼자 입게 하고, 어려운 부분은 도와준다.	111 (68.5)	81 (65.3)	192 (67.1)
③ 주로 내가 입혀 준다.	45 (27.8)	30 (24.2)	75 (26.2)
계	162(100.0)	124(100.0)	286(100.0)

〈표 12〉 자녀의 탈의시 어머니의 도움

구 분	만 3세 (%)	만 4세 (%)	계 (%)
① 혼자 벗게 한다.	25 (15.4)	26 (21.1)	51 (17.9)
② 혼자 벗게 하고, 어려운 부분은 도와준다.	115 (71.0)	86 (69.9)	201 (70.5)
③ 주로 내가 벗겨 준다.	22 (13.6)	11 (8.9)	33 (11.6)
계	162(100.0)	123(100.0)	285(100.0)

에 아무 것도 물리지 않고, 옆에서 다독거려 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습관에 관한 또 다른 문항은 아동의 잠습관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 결과, 만 3, 4세가 된 지금까지 엄마가 곁에서 데리고 잠을 자는 경우는 49.1%이고, 곁에서 재우지는 않지만 같은 방에서 자는 경우는 34.4%이며, 다른 방에서 엄마가 아닌 다른 식구와 함께 자는 경우는 10.5%였고, 다른 방에서 혼자 재우는 경우는 6.0%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다른 방에서 혼자 재우려고 시도할 때 아동이 혼자 자기 싫어하는 경우 어머니의 행동은 그냥 데리고 자는 편이 70.9%, 엄하게 혼자 자게 하는 경우는 3.9%, 반반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25.1%였다. 임연(1979)에서는 1년 이내에 따로 재우는 경우가 드물고 2~6세까지 함께 데리고 잔 경우는 36.3%였으며, 이정덕, 박영진(1984)은 부모들이 자녀를 따로 재우는 것을 애처롭고 냉혹한 처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만 3~4세인 지금도 곁에 데리고 자는 경우가 가장 많고 혼자 자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혼자 자도록 습관 지도를 하기보다는 그냥 데리고 자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면 습관 특성은 3, 4세 정도면 거의 모두 따로 자는 서구의 것과 상당히 다르며, 애착 발달 등 다른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청결 습관

청결 습관의 지도에서는 만 3~4세인 현재 이닦기, 손씻기, 세수를 어떻게 하는 지를 질문하였다. 이닦기는 아이 혼자 닦도록 하는 경우가 38.7%인 반면, 혼자서 하기와 어머니가 닦아주는 것이 반반인 경우와, 주로 어머니가 닦아주는 경우는 각각 47%와 14.3%로서 과반수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이닦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씻기는 주로 혼자 씻도록 하는 경우가 과반수(57.5%)를 차지하였으며, 혼자서 하는 것과 어머니가 해주는 것이 반반인 경우는 36.6%, 주로 어머니가 닦

아주는 경우는 5.9%이었다. 이닦기와 마찬가지로 세수는 혼자서 하는 경우가 34.3%인 반면, 혼자서 하기와 어머니가 닦아주는 것이 반반인 정도가 45.1%, 주로 어머니가 해주는 경우가 20.9%를 차지하였다. 유가효, 강신선(1984)의 연구에서도 손발 씻기, 이닦기를 독립적으로 시키는 시기는 5~6세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손씻기와 같이 손쉬운 일과는 달리 이닦기와 세수하기에서는 보다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결 습관 지도시 어머니의 태도는 좀 엄하게 가르친 편인 경우는 35.9%, 보통 정도였다가 55.4%, 그리고 저절로 하게 될 때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경우는 8.7%였는데, 이를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인 만 3~4세 아동의 어머니들은 현재 청결 습관의 훈련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서 보다 비교적 엄격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식습관

식습관에 관한 내용으로는 혼자 먹는 습관, 식사 습관 훈련시 어머니의 태도, 간식 주기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식습관의 지도는 현재 밥을 먹을 때 홀리더라도 혼자서 먹게 하는 경우는 40.8%, 혼자서 먹거나 어머니가 먹여 주는 것이 반반 정도는 44.6%, 주로 어머니가 먹여 주는 경우는 14.6%였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만 3~4세인 경우에도 과반수(59.2%)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밥을 먹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의 6차 중단 연구(임현덕 외, 1980) 결과에 따르면, 만 3세인 경우 현재 혼자서 식사하는 경우는 44%, 반반의 비율인 경우는 36%로, 주로 어머니가 먹여 주는 경우는 20%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먹여 주는 경우가 15%정도로 나타나, 1980년대 보다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식사 시간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이는 경우는 76.2%이고, 아이가 원할 때는 언제나 먹이는 경우도 23.8%로 예상보다 식사의 불규칙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식사 습관을 지도할 때(예: 식사 시간, 혼자 먹도록 하는 것) 어머니의 태도는 엄하게

가르친 편의 경우는 20.9%, 보통 정도는 59.2%였고, 저절로 하게 될 때까지 두는 편인 경우는 19.9%로 나타나, 어머니의 식사 습관 지도 역시 관대한 편이었다.

한편, 간식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가 원하면 주는 경우는 56.5%이고, 생각나면 주는 경우는 10.2%인 반면, 어느 정도 계획해서 먹이는 경우는 31.8%로서 전체의 1/3 정도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간식을 규칙적 혹은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바람직한 면을 보였다. 간식으로는 <표 13>과 같이 완제품을 사 먹이거나 반조리 식품이나 냉동 식품을 사서 먹이기

<표 13> 간식의 조리 방법

구 분	N	%
① 주로 완제품을 사서 먹인다.	24	8.4
② 주로 반조리, 냉동식품을 사서 데우거나 익혀 먹인다.	8	2.8
③ 주로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어 먹인다.	49	17.1
④ ① 과 ②를 함께	30	10.5
⑤ ① 과 ③을 함께	56	19.5
⑥ ② 와 ③을 함께	65	22.6
⑦ ①, ②, ③ 모두	55	19.2
계	287	100.0

<표 14> 간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음식 종류(중복 응답)

구 분	N	각문항별 %
① 빵, 도너츠류	135/287	47.0
② 과자, 크래커류	99/286	34.6
③ 피자, 햄버거	30/287	10.5
④ 튀김	17/286	5.9
⑤ 별미밥, 죽	9/287	3.1
⑥ 우유, 두유	205/286	71.7
⑦ 야쿠르트류	99/287	34.5
⑧ 아이스크림류	21/287	7.3
⑨ 청량음료	13/287	4.5
⑩ 떡볶이	28/287	9.8
⑪ 사탕, 초콜릿류	8/286	2.8
⑫ 과일	194/287	67.6
⑬ 기타	19/287	6.6

등을 함께 병행하는 경우(19.2%)와 직접 만들어 먹이는 경우(17.1%)가 다소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어머니들은 간식 준비에 여러 가지 종류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식으로 주로 먹이는 음식 종류를 3가지씩 선택하도록 했을 때 <표 14>에서 보듯이 우유나 두유 종류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71.4%가 선택), 다음으로 과일류(67.6%가 선택), 빵과 도너츠류(47.0%가 선택), 과자와 크래커류(34.6%가 선택), 야쿠르트류(34.5%가 선택)가 많이 선택되었다. 이성진, 김광웅(1979)도 과일, 우유, 빵, 과자가 간식으로 사용된다고 보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간식으로는 우유 및 유제품과 과일, 빵종류가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E. 기타 육아 관련 사항

아기의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취업모의 경우 아기를 누가 돌보아 주는지, 그리고 육아 관련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 양육자

둘 전까지 아이는 누가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표 15>와 같이 주로 어머니 혼자 양육한 경우가 62%, 어머니와 타인이 함께 양육한 경우가 31%로 응답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주양육자로 나타났다. 이성진, 김광웅(1976)의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

<표 15> 둘 전까지 및 둘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

구 분	둘 전까지의 주 양육자		둘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 양육자	
	N	%	N	%
① 주로 어머니 혼자 양육	178	62.0	170	59.4
② 어머니와 타인이 공동 양육	89	31.0	98	34.3
③ 주로 타인의 집에서 양육	19	6.6	8	2.8
④ 놀이방, 탁아방의 선생님임	1	0.3	10	3.5
계	287	100.0	286	100.0

의 2차 종단 연구 결과에서는 12개월 현재 어머니에 의해 키워지는 경우가 82.8%로서, 본 연구의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돌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키운 사람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의 59.4%가 주로 어머니 혼자서 양육한 경우이고, 34.3%는 어머니와 타인이 함께 양육하였다.

또한 취업모(전체의 26.4%)의 경우 돌 이전에 직장에 간 동안 아이를 돌보아 준 사람은 시어머니가 43.2%, 친정어머니가 21.6%, 친척이 14.9%, 이웃이 12.2%, 그리고 영유아 보육 기관이 8.1%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취업모의 대부분(79.7%)이 자녀를 기관보다는 친척 등의 혈연관계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육아 정보의 근원

육아에 관한 정보의 근원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1순위로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육아 서적(33.1%)이고, 다음은 이웃 또는 친구들(20.9%)이었다. 2순위로 선택된 것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친모 또는 시모(27.4%), 다음은 육아 서적(24.2%), 그 다음으로는 이웃 또는 친구들(19.6%)이었다. 3순위로 선택된 것 중에서 이웃 또는 친구들(30.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TV, 라디오(22.3%)였다. 따라서 어머니들에게 육아에 관한 정보를 주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육아 서적이 손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만 3~4세 자녀를 둔 중류층 어머니를 대상으로 태교 및 분만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수유, 이유, 배변 훈련, 생활 습관 지도 및 기타 육아 관련 사항 등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종단적인 연구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시대적 추세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70, 80년대 연구와 비교해 보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태교를 중시하여 어느 정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대의 젊은 어머니

들도 여전히 태교를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만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병원에서 분만하였으며 분만시 가족이 곁에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분만 과정 동안 남편이 함께 있는 경우 산모는 정서적, 실제적 지지를 경험하며 불안이 낮게 나타난다는 이정화(1984)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분만시 남편의 존재는 산모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외의 연구에서도, 분만시 남편이 곁에 있음으로써 산모는 진통을 덜 느끼고 약물의 도움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Henneborn & Cogan, 1975), 나아가서는 출산 순간이 최고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된다(Entwisle & Doering, 1981). 대부분의 산모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점에서 볼 때 분만시 남편이 곁에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병원에서 정한 허용 방침과도 관련된다. 미국의 경우, 1972년에는 전체의 1/4에 속하는 병원이 이를 허용하였으며, 1980년에는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그 비율이 80%에 달하였고, 최근에는 이것이 보편적 현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출산 과정에 남편이 함께 있도록 해주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분만 후 신생아는 산모의 곁이 아니라 신생아실에 주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1992)가 지적하였듯이, 현재로서는 출산 후 신생아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지 여부가 어머니와 신생아간의 유대(bond)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생아실을 따로 두어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분만 후 어머니와 자녀를 분리시키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라고 보여진다.

둘째, 전체의 70.5%의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시도하였지만, 실제로 생후 6개월까지 모유나 혼합유를 수유하는 경우는 전체의 59.9%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김재은(1975)은 2세까지 78.7%가 모유를 먹였고, 김충희(1984)에서는 65.1%로 보고된 것과 비교할 때 모유 수유의 비율은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모유가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 이상적인 영양원이며, 아기가 어머니에게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유 수유가 감소하는 것은 모유

영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취업, 유제품의 과대 선전, 인공 영양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그릇된 인식, 미관상의 이유, 불안 근심 등 심리적 원인에 의한 모유 분비의 감소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Jellife, 1977; 김충희, 1984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결과도 인공유 수유가 증가한 데는 위의 원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만후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경우에 신생아실에 따로 있는 경우보다 모유 수유의 성공률이 높아지고(김충희, 1984),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신생아를 돌보는 행동을 더 잘 알아서 하는 등의 초기 상호 작용의 발달에 도움이 되었고(손복희, 1984), 또한 모유 수유는 분만후 첫 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젖을 물려주어야 분비가 잘 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분만후 바로 신생아실에 따로 있으면서 병원에서 무조건 분유로 수유를 하기 보다 모유 수유를 잘 하도록 돕는 교육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정해진 수유 시간 이외에도 아이의 요구에 따라 수유하는 편이었고, 이유는 대부분 6개월까지 시작하고, 24개월까지는 완료하고 있었다. 이유식은 아이 음식을 만들어 먹이거나 또는 아이 음식과 시판 이유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유를 만 2세까지도 했던 이전의 결과들에 비해 이유의 시작 시기가 빨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유식으로서 어른의 음식에서 골라 먹이기 보다 아이 음식을 따로 만들거나 시판 이유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유식으로서 아이의 영양과 발달을 고려하여 따로 음식을 만드는 배려와 어머니의 의식의 변화, 시판 이유식의 발달과 광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소변 훈련은 주로 18개월 이전에 시작하고 24개월까지는 완료되었으며, 대변 훈련은 주로 24개월 이전에 시작하고 30개월까지 완료된 경우가 많았다. 소변 훈련시에 아이가 실수할 때는 주의를 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70년대나 80년대 연구 결과에 비해 어머니들이 때리거나 엄하게 야단치기보다

는 실수에 대해 관대한 편이고, 설명을 하며 타이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기저귀가 젖을 시간이 되면 자주 풀어보고 갈아주는 편이어서,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비해서 어머니들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생활 습관의 지도 가운데 착의 및 탈의에서 어머니들은 아동이 옷을 벗을 때보다 입을 때 더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착의 및 탈의 습관 지도시 대체로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본 연구 대상 아동이 자조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에 있음을 고려할 때, 어머니들의 이러한 태도는 아동의 독립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돌 이전에 잠재울 때 아이의 입에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고, 옆에서 어머니가 다독거려 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과거에 주로 젖을 물려 재웠던 방식에 비해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면 습관에서 아이가 따로 잠자기 싫어하는 경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냥 데리고 자는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아이의 심리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는 있으나 아동의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서구와는 다른 문화적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생활 습관의 지도시 어머니의 태도는 모든 영역에서 '보통 정도'의 엄격한 태도가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청결 습관 지도의 경우는 엄격함이 좀더 강조되었다. 간식은 주로 우유와 유제품이나 과일, 빵, 과자 등을 많이 먹이고, 어느 정도 계획하여 간식을 주는 것으로 나타내서 경제적인 여유와 다양한 제품의 발달, 어머니들의 의식 변화로 인해 아이 위주의 음식과 식단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돌 이전에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전체의 26.4%로서, 이 경우 주로 시어머니(43.2%)와 친정 어머니(21.6%)가 아이를 돌보아 주었다. 아이의 주 양육자에 대한 결과를 볼 때 돌 이전까지는 주로 친척 등 혈연 관계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어서, 특

히 영아기의 아동을 맡길 친척이 없는 경우, 탁아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1994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5세 이하 영유아의 18.39%가 보육 시설과 유치원 취원 아동에 해당하고, 3세 미만의 수탁률은 2.32%에 불과한 실정(양옥승, 1994)임을 볼 때, 특히 영아기의 자녀의 보육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육아 정보의 근원으로 육아 관련 서적을 들고 있어서 많은 어머니들이 육아 서적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장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으로 우수한 육아 서적이 요구되며, 이러한 서적을 선택할 수 있는 어머니의 안목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어머니들의 육아 실태는 70년대와 80년대에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 비해 어느 정도 유사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다소간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최근 어머니들은 수유 방법으로 모유보다는 인공유를 선호하고, 여러 가지 상업적인 생산품을 더 많이 이용하며, 습관 훈련은 비교적 일찍 시작하는 반면, 그것을 지켜 가는 데는 다소 소홀한 면도 보여 나이가 되면 저절로 한다는 관대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어렸을 때 육아 방식은 습관 형성의 기초가 되고 독립심을 기르는 터전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성숙 정도에 근거하여 그 발달 수준에 적절한 생활 습관과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류층으로 대상을 한정시켰고, 회고식 자료이고, 대규모의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상 연령과 사회 계층의 동질성으로 인해 현 우리 사회의 중류층에 속한 젊은 어머니들의 육아 실태를 어느 정도 반영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하나의 기초 자료로 삼아, 육아 실태의 보다 다양한 측면을 포함시킨 실태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육아 실태를 아동의 발달과 관련시킨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90년대 젊은 어머니들의 육아 방식을 기초로, 우리 나라 어머니들의 육아 방식이 우리 나라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계숙. 한국 기혼 남녀의 태교에 관한 연구. 성신 여자 대학교 교육 대학원논문, 1987.
- 2) 강신선. 농촌 어머니의 육아 관행에 대한 연구. 계명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3.
- 3) 계정희 외 3인.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VII): 제 7차 연구 결과. 행동 과학 연구, 제14권, 4호, 1981,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
- 4) 계정희 외 5인.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VIII): 제 8차 연구 결과. 행동 과학 연구, 제15권, 4호, 1982,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
- 5) 계정희 외 5인.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IX): 제 9차 연구 결과. 행동 과학 연구, 제16권, 1호, 1983,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
- 6) 김재은. 한국 어머니의 육아 실태에 관한 일 연구 - 0세~2세까지의 어린이를 중심으로 -. 한국 문화 연구원 논총, 제26집, 1975, 173-191.
- 7) 김충희. 1세 이하 영유아의 수유 실태에 관한 조사. 이화 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4.
- 8) 박성연(역) 「인간 발달 I」, Papillia, D. E. 외 공저 1989, 서울: 교육과학사, 1992.
- 9) 서현자 외 3인. 부모의 양육 방법과 아동의 인성과의 관계. 청과 교육, 제6호, 1966.
- 10) 성은모. 한국 어머니의 육아법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 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2.
- 11) 손복희. 모자 동실 동거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 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4.
- 12) 양옥승. 남북한 보육 정책 비교. 가족학 논집, 제 6집, 1995, 69-90.
- 13) 오왕복. 사회 계층에 따른 육아 방식에 관한 일 연구. 건국 대학교 교육 대학원 논문, 1984.
- 14) 우영희. 어린이 성격과 육아 조건. 국민대 논문집, 1970, 299-339.
- 15) 유가효, 강신선. 한국 농촌 어머니의 육아 관행에 대한 연구. 과학 논집: 계명 대학교, 제10집,

- 1984, 179-193.
- 16) 유안진. 아동 양육. 서울: 문음사, 1994.
 - 17) 윤숙경. 중도시의 이유 실태. *안동 대학 논문집*, 제3집, 1981, 437-453.
 - 18) 이성진, 김광웅.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II): 제 2차 연구 결과. *행동 과학 연구*, 제9권, 6호, 1976,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
 - 19) 이원영. 아동의 사회적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 방법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11권, 3호, 1973, 83-98.
 - 20) 이정덕, 박영진. 한국과 일본의 육아 방식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2권, 1호, 1984, 141-156.
 - 21) 이정화. 분만과정시 남편의 참여가 초산부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3.
 - 22) 임연택 외 3인.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VI): 제 6차 연구 결과. *행동 과학 연구*, 제13권, 10호, 1980, 한국 행동 과학 연구소.
 - 23) 임희규. 농어촌 지역의 양육 방법에 관한 연구 - 수유, 이유, 배변훈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5집, 1984, 65-80.
 - 24) 한국 여성 개발원. 여성 관련 사회 통계 및 지표. 서울: 한국 여성 개발원, 1994.
 - 25) 현은강. 이유식에 관한 고찰. *서울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71.
 - 26) 홍혜경. 한국 여성의 태교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 여자 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0.
 - 27) Bee, H. *The Developing Child*. New 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2.
 - 28) Entwisle, D. R., & Doering, S. G. *The first birth*.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29) Henneborn, W. J., & Cogan, R. The effect of husband participation on reported pain and the probability of medication during labour and birth.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 1975, 215-222.
 - 30) U. S. Bureau of the Census.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0* (110th ed.).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